

# ‘以實作虛’와 主題思想

- 雜劇 《漢宮秋》, 《靑衫淚》를 중심으로 -

임 동 춘\*

## 目 次

1. 序 論	3. 白居易에서 《靑衫淚》까지
2. 王昭君에서 《漢宮秋》까지	1) 白居易(以實)
1) 王昭君(以實)	2) 史實에서 문학으로(作虛)
2) 史實에서 문학으로(作虛)	3) 《靑衫淚》
3) 《漢宮秋》	4. 結 論

## 1. 序 論

문학작품의 창작에 있어서 작자는 그의 주변 素材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선택하여 가공 윤색을 거쳐 그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의 제재로 삼는데, 이러한 가공 윤색의 방향은 작자의 창작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특히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자의 해석은 흔히 그가 주장하고자하는 바와 직결되는 경향이 있다.

제재의 운용에 대한 관심은 근현대의 작품연구에서만 갖는 관심이 아니었다. 清代의 李漁는 《閑情偶記》<sup>1)</sup>에서 傳奇의 제재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 잡극의 제재문제에도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

\* 濟州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

1) 李漁, 《李笠翁曲話》, 長沙, 湖南省新華出版社, 1981,

전기에서 사용되는 사건들은, 현재의 것과 옛 것이 있으며, 허구인 것과 사실인 것이 있는데, 작가들이 나름대로 취한 것이다. 옛 것은 서적에 기재된 것으로서, 옛 사람들이 이미 기록해 놓은 사건들이다. 현재의 것은 귀와 눈으로 傳聞한 것으로서, 당시에 거의 드러난 사건들이다. 사실인 것은 사건을 취하여 부연할 뿐 조작하지 아니하며, 근거가 있는 것이다. 허구인 것은 공중누각처럼 마음대로 구성한 것인데,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옛 일에는 사실이 많고, 최근의 일에는 허구가 많다”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전기에는 사실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언일 뿐입니다”라고 했다….

(傳奇所用之事, 或今或古, 有虛有實, 隨人拈取. 古者, 書籍所載, 古人現成之事也. 今者, 耳目傳聞, 當時僅見之事. 實者, 就事敷陳, 不假造作, 有根有據之謂也. 虛者, 空中樓閣, 隨意構成, 無影無形之謂也. 人謂, 古事多實, 近事多虛. 予曰, 不然, 傳奇無實, 大半皆寓言耳.…)2)

그가 주장하는 “虛”는 “虛構”를 가르키는 것이고, “實”은 “事實”을 말하는 것인데, “實”의 기준을 단순히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을 모두 “實”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현대인에게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과학상식이 결핍된 고대인의 한정된 관념하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古者, 書籍所載, 古人現成之事也. 今者, 耳目傳聞, 當時僅見之事.”는 작품의 체재에 대한 것인데 반해서 “實者就事敷陳, 不假造作, 有根有據之謂也. 虛者, 空中樓閣, 隨意構成, 無影無形之謂也”는 체재의 운용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3)

서사문학작품은 모두 허구의 것임을 감안하면, 체재의 운용은 기실 “以虛作虛”와 “以實作虛”4)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2) 詞曲部, 結構第一, 審虛實條.

3) 曾永義, 앞의 책, 25쪽 참조.

4) 曾永義는 그의 <喜劇의 虛與實>에서 李漁의 說을 援用하여 중국 고대 희극 작가들이 題材의 虛實을 “以實作實, 以實作虛, 以虛作實, 以虛作虛.”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네 가지 방법의 분류상에 사용되는 虛와 實의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제재를 운용하여 고사나 인물을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以實作虛”의 제재운용이란, 희곡이 비록 사전과 잡설에 근거하여 개편되었을지라도, 그情節에 剪裁와 敷衍이 가해지고 그人物의性情을 刻劃 誇張하여, 작가가 표현하고자하는 사상과 지취를 여기에 의탁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中國古典戲曲 題材의 특성상 작품의 대부분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문학의 주류를 이루던 잡극에 비교적 명백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문학에서 主題는 흔히 主題思想이라는 말로 혼용해 사용된다. 주제사상이란 말의 세부적인 의미는, 主題가 작가가 작품에서 제기한 기본적인 것이고 주요한 문제를 의미한다면, 思想은 작가가 그것을 표현할 때에 취하는 태도 견해 주장 의향 등을 의미한다. 요컨대 주제사상은 작가의 주관과 제재의 객관이 유기적 통일을 이룬 것을 지칭하는 말이며, 제재 자체가 주는 객관적인 측면과 작가가 자신의 일정한 입장과 견해에 입각하여 선택처리하고 묘사 평가하는 주관적인 견해라는 측면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sup>5)</sup>

중국의 희곡문학은 원대에 이르러 크게 흥성하게 되는데, 異民族 정권인 元代에 활동했던 漢人作家들의 창작태도는 그들의 처한 특수한 처지에 따라 나름대로 독특한 역사해석법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그의 주제사상을 드러낸다.

본고에서는 雜劇 중에서도 역사에서 제재를 취한 《漢宮秋》와 《靑衫淚》를 중심으로 作者 馬致遠의 取材意圖와 제재해석법 그리고 결국 그가 주장하는 주제사상의 과정을 밝혀 보아, 창작과정에서 題材의 主題化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을 엿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작품 제재의 연원을 밝혀, 이것이 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따라서 제재의 원형을 찾아보는 것

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네 가지 방법의 분류상에 사용되는 虛와 實의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以實作虛, 以虛作虛.”의 둘로 나눈다면 虛와 實의 개념이 비교적 명쾌해진다.

曾永義, 《說戲曲》, 대북, 聯經出版社, 1976,

5) 梁會錫, 《中國戲曲》, 민음사, 1994. 201쪽.

이 중요하다. 이런 전체 아래 이 원형이 작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천을 거쳤으며, 작가에게는 어떠한 내용으로 받아 들여졌을 것인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고찰을 통한 작자의 주제의식을 알아보기로 한다.

## 2. 王昭君에서 《漢宮秋》까지

### 1) 王昭君(以實)

王昭君은 실재인물로서 西漢 元帝代(B.C.1C중엽)의 인물이다. 南郡 秭歸의 농촌에서 태어나 궁중에 뽑혀 들어간 후에 원제의 명으로 匈奴 呼韓耶單于의 부인이 되었었다. 왕소군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班固 《漢書·元帝紀》이다.

경령 원년 일월에, 흉노 호한야선우가 입조하자 명령하였다. “질지선우가 예의를 배반하였으나, 이미 그 죄를 인정하였다. 호한야선우는 은덕을 잊지 못하고, 예의를 앙모하여, 다시 조공의 예를 행하겠다고하니, 영원히 변방을 보전하고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 竟寧으로 改元하고, 선우에게 후궁 왕장을 부인으로 하사하여라”

(竟寧元年春正月, 匈奴呼韓耶單于來朝. 詔曰“匈奴邳支單于背叛禮義, 既伏其辜, 呼韓耶單于不忘恩德, 多慕禮義, 復修朝賀之禮, 願保塞傳之無窮, 邊垂長無兵革之事. 其改元爲竟寧, 賜單于待詔掖庭王嬙爲關氏”)

《匈奴傳》의 기록은 더욱 상세하다.

(호한야)선우가 스스로 한실의 사위가 되어 화친하자고 하였다. 원제는 후궁이며 양가의 자손인 왕장(字 昭君)을 선우에게 주었다. 선우는 기뻐하며, …왕소군은 寧胡關氏로 불리웠으며, 伊屠智牙師이라는 남아를 낳았는데, (그는)右日逐王이 되었다. …호한야선우가 죽자, 雕陶莫皋

昭君을 처로 삼아, 二女를 낳았는데. 長女는 須卜居次이고, 次女는 當于居次이다.

(單于自言愿婚漢氏以白親.元帝以后宮良家子王嫱字昭君賜單于.單于歡喜,…王昭君號寧胡闕氏,生一男伊屠智牙師,爲右日逐王,…呼韓耶死,雕陶莫臯立,爲復株累若鞮單于,…復株累單于復妻王昭君,生二女.長女云爲須卜居次,小女爲當于居次.)

이 두 가지 史料로 참조해 보면, 중국인의 안목으로써는 王昭君의 일생은 기본적으로 불행한 것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녀는 궁녀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으나 흉노 선우 호한야에게 선물로 주어져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호한야의 本妻노릇도 할 수 없었다<sup>6)</sup>. 혼인 후 3년이 되지 않아 호한야가 사망하자 왕소군은 고국에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漢의 成帝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흉노의 풍속인 “子烝其母”<sup>7)</sup>에 따라 호한야의 아들 雕陶莫臯의 부인이 되었었다. 이러한 상황을 왕소군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반윤리적이고 대단한 굴욕으로 받아 들여졌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서한초기에는 한과 흉노의 세력균형이 점차 무너져 흉노가 중원을 침입하는 일이 잦아졌고 한왕실에서는 이를 和親政策으로 막아보려 하였다. 漢高祖9年(B.C.198)에 劉敬을 흉노에게 보내어 화친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武帝元光2年(B.C.133)에 흉노 정벌에 나서기까지의 기간(惠帝, 文帝, 景帝)은 시종 화친정책으로 일관되었다. 화친조약의 定款은 대략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주를 單于에게 시집보내고, 金千金과 솜, 술, 쌀 등을 주며, 둘째는“通關市”를 만들어 상호 교역하고 셋째로 한과 흉노는 형제국가가 되며 長城을 경계로 서로 침입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화친정책은 실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척박한 토양을 바탕으로 생산업이란 양축과 낙농이 전부

6) 闕氏는 처의 호칭일 뿐만이 아니라 첩의 호칭이기도 하다.呼韓耶는 5-6명의 闕氏가 있었으며 왕소군은 맨 마지막 闕氏의 위치에 있었을 뿐이다.

7) 아들이 어머니를 물려 받는 몽고 풍속.

인 그들에게 중원은 꿈과 같은 낙원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위국이나 형제국 또는 조금씩 주는 중원의 생산품들은 그들을 조약의 준수자로서 머물게 할 수 없었다.

한무제는 등극 이후 충실한 국력으로써 흉노를 제압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믿고 화친정책 같은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방어전쟁을 택하였다. 무제가 실행하는 일련의 군사, 정치, 경제상의 정책은 두 차례의 결정적 전쟁<sup>8)</sup>을 통하여 흉노귀족에게 진정한 화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래서 변방에 대한 흉노의 예봉은 훨씬 약화되었을 뿐아니라, 흉노 내부의 여러 모순과 漢兵에 대한 공포로 19년간이나 억류하고 있었던 蘇武를 돌려 보내면서 한조와의 관계완화를 꾀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이러한 유화정책은 항상 자신에게 힘이 없을 때나 힘을 비축하기 위한 시일이 필요할 때에 사용되는 법이다. 흉노의 중원에 대한 갈망은 거의 그들의 신념과 같은 것이었다. 昭帝 元平元年(B.C.74), 흉노는 다시 변방을 자주 침입하여 漢朝를 핍박하였다. 宣帝 本始三年(B.C.71), 漢朝는 五路大軍을 조직하고서 대규모 전쟁을 치러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흉노의 세력은 크게 약화된다.

呼韓耶單于는 특별한 歷史時期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匈奴 頭曼單于의 七世孫인 虛閼渠單于의 아들이다. 원래 單于를 계승하였으나 右賢王 屠耆堂(握衍胸鞬單于)의 음모로 폐위되어 左地로 망명하게 되었다. 후에 屠耆堂이 패전하여 자결하자 後任 薄胥堂單于을 물리치고 다시 선우에 복귀하였다. 얼마 후, 薄胥堂이 급습하여 패주하게 되자, 구심점이 없어진 흉노의 귀족들은 분분히 單于를 자칭하게 되어 所謂“五單于爭立”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呼韓耶單于是 이 난전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지만 경제는 피폐하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된다. 호한야가 쇠잔한 국가

8) 첫번째 전쟁:《史記·匈奴列傳》에 의하면 武帝 元狩二年(B.C.121) 봄에 霍去病이 흉노 8000여명을 살해했고, 여름에 다시 霍去病이 흉노 30000여명 살육하였으며, 같은 해 《漢書·武帝紀》에는 李廣이 3000여명을 살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번째 전쟁:《史記·匈奴列傳》에 元狩四年, 衛青이 19000여명을 베었으며, 다시 霍去病이 7000여명을 베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屠耆單于의 從弟 休旬王이 서쪽에 자리잡고 자립을 선언하고 閼振單于를 자칭하게 되고, 呼韓耶의 형인 左賢王 呼屋吾斯가 동쪽에 자리하고 郅支骨都侯單于를 자칭하고 나선다. 얼마 후, 郅支는 閼振을 살해하고 호한야의 병사를 격퇴하여 單于庭을 차지하게 된다. 호한야는 세력이 약화되고 양면공격의 위협에 처하게 되자, 한조에 자식을 인질로 보내고, 藩臣을 자칭하면서 한조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뜻을 전한다. 호한야가 한조에 항복한 후에 질지 또한 호한야와 한조의 연합공격을 두려워하여 자식을 인질로 入朝시키고 호친을 제의한다. 그러나 질지는 호한야가 한조와 제휴하고 있는 한은 흉노의 통일이 요원하다고 여기고서, 서쪽으로 伊犁河부근까지 옮겨가 북쪽으로 呼揭과 丁令을 서쪽으로 堅昆을 격파하여 강성해진다. 그래서 아들을 되찾고 元帝 建昭三年(B.C.36)년에는 漢使臣인 護西域騎都尉 甘延壽와 副校尉 陳湯을 살해하기까지 한다. 呼韓耶는 漢朝의 도움으로 흉노를 통일하고, 질지를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정적을 제거하여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였는데, 질지의 漢朝에 대한 견재가 사라져 한조에 대해 거의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그로 하여금 元帝 竟寧元年(B.C.33)봄에 한조에 나아가 한조의 사위로서 자신을 의탁하게 하였던 것이다.

흉노가 약화되면서 호한야는 한조의 힘을 빌어 復政에 성공하게 되고 한조는 옛 조약에 의거하여 공주를 시집 보냈을 뿐 아니라 후궁으로서 양가집 자제인 王禱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 후, 호한야는 漢朝에 상소하여 上谷의 서쪽으로부터 敦煌에 이르기까지의 邊方兵士를 철수시켜 천자를 편히하고 백성을 쉬게하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한조는 이러한 상서가 한조에 대한 위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사실상 한조는 평소 흉노에 대한 경계심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郎中 侯興의 건의를 받아들여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호한야는 한조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종 내부적 경계만을 하였을 뿐, 漢에 대한 적대 행위를 삼가 하였다.<sup>9)</sup>

9) 劉蔭栢, 《馬致遠及其劇作論考》, 北京, 新華書店, 1990, pp47-48요약

중국의 역사에서 出塞한 여인은 적지 않다. 상당수의 공주 등이 있었으나 그들에 대한 事迹은 많은 문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양가의 자제인 궁녀 왕소군에 대해서는 역대의 많은 문인들이 同情을 느끼고 나아가 많은 가작을 남기고 있다. 淸人 胡鳳丹이 編輯한 《靑冢志》에는 400余首의 왕소군에 대한 詩歌가 收錄되어 있고, 그녀의 사적을 언급한 서적이 230余部나 된다.

역대 문인들의 왕소군에 대한 詩詞, 筆記, 小說, 變文, 戲劇, 鼓詞등은 다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昭君 개인의 비극적 삶에 자신의 懷才不遇를 의탁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인들은 언제나 백성들에 대한 심정적 동정도 함께 표현하는데, 李白의 《王昭君》, 杜甫의 《咏懷古迹五首》의 第三首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儒家의 전통적인 관념에 의한 동정으로서, 불행한 미인의 失節을 인정할 수 없어서 소군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새로운 전설을 탄생시킨 부류이다. 蔡邕의 《琴操》, 劉義廣의 《世說新語》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愛國主義를 堅持하는 입장이나 민족의식의 발동으로 인하여 왕소군의 전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내심을 드러내고 굴욕을 당하는 백성들의 恨을 달래 주려는 부류이다. 마치원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 2) 史實에서 文學으로(作虛)

《漢宮秋》의 제재는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史實에서 벗어나게 된다. 范擘가 撰한 《后漢書·南匈奴傳》의 왕소군에 대한 기록은 점차 史實에서 벗어나 민간전설의 색채를 띠게 된다.

왕소군은 字가 嬪이며 남군인이다. 처음 元帝時에 양가집 자제로서 후궁에 뽑혀 들어왔다. 그 때 호한야선우가 入朝하여 황제는 궁녀 다섯을 그에게 주려하였다. 소군이 입궁한지 數年이 되었으나 황제를 가까이 할 수 없어 슬픔과 원한이 쌓여, 掖庭舍에게 入塞을 청하였다. 호한야의 송별회에서, 황제는 다섯여자를 불러 그에게 보여 주었는데, 소군



은 용모가 뛰어나고 단정하였으며 미모가 빛났고, 경치를 돌아보며 배회하니 모두 다 감탄하였다. 황제가 크게 놀라, 마음은 잡아두고 싶었으나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드디어 흉노에게 주었다.

(昭君字嬪, 南郡人也. 初元帝時, 以良家子選人掖庭. 是呼韓耶來朝, 帝勒以宮女五人賜之. 昭君入宮數歲, 不得見御, 積悲怨, 乃請掖庭令求行. 呼韓耶臨辭大會, 帝召五女以示之, 昭君豐容靚飾, 光明漢宮, 顧景裴回, 竦動左右. 帝見大驚, 意欲留之, 而難于失信, 遂與匈奴.)

이러한 기록은 《漢書》의 기록에 두 가지 내용이 첨가된 것이다. 첫째는 왕소군이 대단히 이름다웠었다는 내용이며 둘째는, 황제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불만에 쌓이고 그래서 스스로 入塞를 택했다는 내용이다. 다분히 문학적인 내용이 첨가된 것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중국 고대 사학자들의 저서에서 흔히 발견된다. 중국고대 사학자들은 正史와 野史 또는 傳說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漢魏六朝小說, 예를 들면 《穆天子傳》 《漢武故事》와 《西京雜記》 등이 처음에는 史類로 분류했었던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왕소군 고사의 변화는 范曄보다 약간 이른 시기의 晉人 葛洪이 劉歆이라는 이름으로 저작했다고 알려진 《西京雜記》에서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왕소군의 미모 외에 가공의 화가 毛延壽의 点破美人圖故事의 雛形이 첨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원제는 후궁이 많아서, 자주 볼 수가 없어, 화공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하여, 그림을 보고 납시었다. 모든 궁녀들이 화공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많이는 십만금, 적어도 오만금은 되었다. 왕장만이 홀로 거부하여 알현할 수가 없었다. …곧 그 일을 조사하여, 화공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

(元帝後宮既多, 不得常見, 乃使畫工圖形, 按圖招幸之. 諸宮人皆賂畫工, 多者十萬, 少者亦不減五萬. 獨王嬪不肯, 遂不得見. …乃窮案其事, 畫工皆棄市.)<sup>10)</sup>

10) 《西京雜記》 卷二

棄市.)<sup>10)</sup>

昭君故事는 唐代 安史의 亂 이후에 애국주의적 내용이 첨가되기 시작한다. 남송시대에 金の 침입으로 중원이 온갖 어려움에 처하자 애국주의와 민족감정의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백성들의 요구였을 것이다. 呂本中の <明妃>, 李綱의 <明妃曲>, 陸游의 <明妃曲> 등은 모두 異口同聲으로 화친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민족적 굴욕이라고 여기고 있다. 더불어 公卿, 大臣을 풍자하고, 심지어는 황제를 화친정책의 책임자로 책망하고 있다. 文天祥은 <和中齋韻>과 <二月晦>詩 중에서 昭君故事를 빌어 愛國主義의 懷抱를 풀고 있다. 北宋末期에는 后妃, 宮女들이 납치되거나 능욕을 당했다는 기록이 많다. 심지어 宋 高宗 趙構의 어머니인 書賢妃가 金の 귀족인 盖天大王의 압력으로 그의 妾이 되었고, 欽宗의 朱后는 金人에게 凌辱을 당하고 죽었으며 기타 공주들도 노비로 팔리어 다른 이의 첩이 된 자가 많았다. 하물며 일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의감이 있는 일부 문인들 昭君故事에 비장한 기분을 첨가하고 비분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경향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서 사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昭君故事가 漢族의 경계를 뛰어넘어 원통치에 시달리는 중원 각 민족의 한과 슬픔을 대변하게 된 것이다.

### 3) 《漢宮秋》

馬致遠은 《漢宮秋》에서 소군고사의 각종 전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대단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漢宮秋》는 《西京雜記》, 《王昭君變文》, 《琴操》등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 《漢宮秋》에서의 왕소군은 멀리 시집가 슬퍼하는 소녀, 子蒸其母를 싫어하여 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던가, 용기와 정의감의 화신이라던가, 和親을 위해 떠났지만 入境을 거절하며 강에 뛰어들어 장렬히 자결하였다던가하는 단순한 애국

10) 《西京雜記》 卷二

적인 주인공이 아니다. 내용 또한 이 고사를 통과하면서 벼슬아치들과 황제의 무능을 통렬하게 비판하여, 中原 각 민족의 故國과 民族의 퇴락에 대한 분하고 슬픈 상념을 표출하고 있다.

마치원이 《漢宮秋》가 창작되기 이전에 지은 【四塊玉·紫芝路】에서

기러기 북으로 날고, 사람은 북을 바라보는데 명비는 애태우며 漢王  
을 버리네. 선우는 술잔 들고 소리내어 노래 부르고, 푸른 초원에는 젖  
소가 있고, 흑강가에는 扇尾羊 있지만, 그녀는 오직 고향생각 뿐.

(雁北飛, 人北望, 拋閃煞明妃也漢王. 小單于把盞呀刺刺唱, 青草畔有收  
酪生, 黑河邊有扇尾羊, 他只是思故鄉.)

이라 하였는데, 본 小令에는 뚜렷한 인물형상과 북쪽지방의 광활함 등  
을 작자의 담담한 필치로 그려낸 昭君故事詩 중에서도 뛰어난 것이다.  
여기에서는 소군이 흉노의 땅으로 들어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읊고  
있다. 즉, 《漢宮秋》에서 다루었던 昭君이 黑河에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원이 당시 일반적 재제를 취  
하여 詠嘆하다가, 점차 애국적 정서에 젖게 되고 민족감정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는 고통스러운 사상의 연마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몇몇 사람은 마치원이 극중에서 소군을 통하여 故國(宋)을 그리워하  
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마치원이 성장한 歷史地理的  
배경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마치원은 祖上代代로 중국의  
북방에서 생활해 왔는데, 五代時 後晉의 石敬瑭은 이 지역을 遼에 주었  
었고, 宋徽宗 宣和年間(1119-1125)에 잠시 송의 치하에 있었지만 오래  
지 않아 다시 金이 管轄하게 된다. 따라서 원이 금을 멸한 이후에도 北  
方文人들의 고국에 대한 사랑은 결코 강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어떤  
시인은 金朝를 그리는 시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이는 元을 도와 南宋을  
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방의 애국주의는 비교적 농후했으며, 민족감  
정 또한 강한 것이었다. 북방의 문인들이 元朝에 불만스러웠던 것은 元

儒家的 교육을 받은 자들로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漢族歷史上的 賢君과 盛世를 동경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민족적정서가 잠재하고 있었다.

마치원은 남겨진 그의 작품으로 보아 타고난 鬪士도 아니며 일생을 이민족 치하에서 생활해서 宋에 대한 遺民意識이 강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지며, 다만 어두운 현실과 피압박 민족으로서 자신의 가련한 처지 등이 잠재되어 있던 그의 민족의식을 불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그는 文人 기질이 농후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유학적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소군이 흉노에 再嫁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여 그녀를 黑河에 투신하도록 하였던 것 같다. 마치원 자신은 본인 작품의 강렬한 내용을 의식하지 못하였으나 일반 백성들의 激昂된 민족정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한스러운 곡조로써 백성과 時代의 哀痛을 창출하였는지도 모른다. 《元曲選》에서는 이 劇을 첫 작품으로 신고 있는데, 만약 마치원이 이러한 제재로써 황제와 궁녀의 사랑타령 정도만을 늘어놓아 백성과 시대의 정서에 등을 돌렸었다면, 그의 명성에 대단한 손해 되었을 것이다.

마치원의 《漢宮秋》에서 그려지는 왕소군의 形象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고대 중국 부녀자들의 이상적 품격인 美麗, 聰明, 勇敢, 明義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녀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의연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고, 고귀한 품격으로써 무릎을 꿇지 않고 색으로써 적을 상대하였으며, 일이 성사되자 黑河에 투신한다. 그녀의 짧은 일생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장렬한 絶嘖이라 할 수 있어서 영원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한 예술적 매력을 발하고 있다.

마치원의《漢宮秋》에서 나타난 한원제의 형상은 비극성에 있어서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작품의 문학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는 상황에 밀려 부득히 소군을 떠나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하들의 무능에 대해 대단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第二折【牧羊關】에서

음 먹었으면 목숨이 군주의 입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 태평할 때에 너희 제상들은 공로를 팔았으면서, 일이 있는 곳에는 나의 佳人을 보내려 하는구나! …… 저쪽에서는 나무를 붙잡고서 무서워 손을 깎지 끼고 있고, 저쪽에서는 난간을 붙잡고도 무서워 넘어져 머리를 깨트리 는구나.

(興廢從來有, 干戈不肯休, 可不食君祿命懸君口, 太平時賣你宰相功勞, 有事處把俺佳人遞流. …… 那壁廂鎖樹的怕彎着手, 這壁廂攀欄怕攔把了頭.)

라고 하여 신하들에게 분노와 혐오를 나타내고 있다. 소군의 入塞後에 한원제는 소군에 대한 생각과 변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구름 사이에서 우는 외로운 기러기들이 서로 화답하는 애절한 소리를 듣게 된다.

천천히 한 번, 또 짧게 한 번 울어, 화답하며 추운 시간을 다하는구나.  
(他叫得慢·會兒, 緊·會兒, 和盡寒更.) 第四折 【上小樓】

추운 밤 구름 위에서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서로 화답하는 기러기 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이를 북쪽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지새우는 자신을 돌아보며 홀로 중얼거리는 말이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내 심사가 편치 못한데, 또 저 원수까지 못살게 구는구나.  
(不是我神思不寧, 又添個冤家纏定.)

마치원이 그려낸 원제는 인간적인 황제에서 감정적으로 더욱 발전하여 진실한 한 사람의 짝없는 연인으로, 한편 한 여인만을 연연해 國事를 그르치는 무능한 황제, 양면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同情과 질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였다.

### 3. 白居易에서 《靑衫淚》까지

#### 1) 白居易(以實)

《靑衫淚》의 제재문제는 《漢宮秋》에 비해 복잡하다. 즉, 白居易의 詩 《琵琶行》의 내용에서 意境을 따오고, 宋代 雙漸小卿故事의 情節을 중심으로, 妓女 樊事眞의 故事를 적절히 운색 가미하여 이룬 것이다. 한마디로 고금의 제재를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구조로 이룬 것이다. 두 개의 고사가 가미되어 극을 이룬 경우는 드물지 않으나<sup>11)</sup>, 이처럼 세 가지 고사를 취한 경우는 드문 것이다. 《靑衫淚》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白居易, 賈島, 孟浩然 등은 교방에 놀러 갔었는데, 백거이가 명기 裴興奴를 사모하게 되었다. 얼마 후 둘은 終身之約을 맺게 되고, 그 후 오래지 않아 唐憲宗은 백거이를 江州司馬로 좌천시킨다. 배홍노의 어머니는 茶商 劉一郎과 짜고 백거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하여 배홍노를 유일랑에게 시집보낸다. 후에 배홍노는 茶船을 따라 江州에 이르게 되었는데, 밤에 배위에서 비파에 시름을 실어내고 있었다. 마침 백거이는 元稹과 배 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비파소리를 듣게 되고 기대하지 않던 배홍노를 만나게 된다. 元稹은 돌아가 황제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자초지종을 고하고 드디어 배홍노를 백거이의 첩이 되게 해준다.

《琵琶行》의 본제는 《琵琶引并序》인데 “序”에서 백거이는 本曲의 창작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원화 10년, 나는 구강군사마로 좌천되었다. 다음 해 가을 湓浦口에서 손님을 전송하는데, 저녁에 배 안에서 비파 타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들어보니 소리가 맑아 長安의 風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물으니 본래는 장안의 娼妓인데 일찌기 穆, 曹 양인의 琵琶高手에게 비파를 배웠으나, 나이 들어 아름다움이 사라지니, 商人의 부인이 되었다 한다. 술을 칭

11) 關漢卿의 《寶娥冤》(鄴衍六月飛霜과 東海孝婦故事)등

하고 빠른 것 몇 곡을 타게 하였는데, 곡이 끝나자 가없어 보이더라. 그녀는 스스로 어려서는 즐기다가, 지금은 퇴락하고 초체하여 강호를 전전하고 있다 하였다. 내가 궁박의 관리로 나온지 2년간, 편안하게 보내었는데 그 사람 말에 감동하여 그 날 저녁부터 유배를 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長詩를 지어 노래 불러 그녀에게 주니, 612字이며, “琵琶行”이라고 이름지었다.

(元和十年, 予左遷九江郡司馬. 明年秋, 送客湓浦口. 聞舟中夜彈琵琶者, 聽其音錚錚然有京都聲. 問其人, 本長安倡女. 嘗學琵琶于穆曹二善才, 年長色衰, 委身爲賈人婦. 遂命酒使快彈數曲, 曲罷憫然. 自敘少小時歡樂事, 今漂淪憔悴, 轉徙于江湖間. 予出官二年, 恬然自安, 感斯人言, 是夕始覺有遷謫意. 因爲長句, 歌以贈之, 凡六百一十二言, 命曰“琵琶行”)

마지막 부분의 六百一十二은 六百十六의 잘못이다.白居易는 元和 10년에 宰相 武元衡사건에 대해 直言上疏하였다가 憲宗의 노여움을 사서 九江郡司馬로 좌천되었다. 이러한 심사에서 일개 퇴락한 비파 타는 여인을 빌어 자신의 심정을 읊고 있다. 詩中の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백거이와 어떠한 연애사건도 없었다.

裴興奴의 신분과 고사는 正史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劉蔭柏은 《筆記小說大觀》第六輯에 실려 있는 宋代 趙德麟의 《侯鯖錄》을 인용하여 배홍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sup>12)</sup>

백낙천의 《琵琶行》에서 “일찌기 곡이 끝나 善才(名人)를 탄복하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善才의 출처는 알 수 없다. 《琵琶錄》에 말하기를 : 원화년간에 왕분, 조보, 조보의 아들 등은 善才였는데, 그 손자 조강도 이 예술을 익혔다. 그 다음으로 배홍노가 있는데 조강과 같은 시기의 사람이다. 조강이 運撥하면 마치 風霜같지만 提弦에는 뛰어나지 못했다. 홍노는 攏捻에 뛰어나는데, 下撥은 약간 약했기 때문에, 당시인들은 조강은 右手指法의 大家요, 홍노는 左手指法의 대가라고 말했었다. 백낙천은 조강의 비파소리를 들었었는데,...

12) 劉蔭柏, 앞의 책, 56쪽

(白樂天《琵琶行》云：“曲罷曾令善才伏”，而善才不知出處。《琵琶錄》云：元和中王芬，曹保，保有子善才，其孫曹綱，皆習此藝。次有裴興奴，與曹同時，其曹綱善爲運撥若風雷，不長于提弦，興奴則長于擺捻，下撥稍軟，時人謂綱有右手，興奴左手。樂天又有曹綱琵琶…)

撥, 擺, 捻 등은 비파의 運指法이며, 《琵琶錄》은 唐人 段安節이 지은 《樂府雜錄》의 俗稱이다. 따라서 배홍노는 실존인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백거이가 조강의 비파연주를 들었다고 했고, 배홍노는 조강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비파의 명인이므로 서로 면식이 있었다면 백거이와 배홍노의 만남도 가능해진다. 마치원은 이 가능성 높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극으로 엮은 것이다.

《靑衫淚》의 내용은 雙漸蘇卿故事에 가깝다. 元曲에 등장하는 연애고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崔鵬과 장생, 당명황과 양귀비, 쌍점과 소경의 연애고사이다. 梁乙眞은 《元明散曲小史》에서 이것들을 元曲三大情史라고 칭하고 있다. 雙漸과 小卿의 전설은 송대에 발생하였는데, 陶宗儀가 編한 《南村輟耕錄》의 “院本名目”條에 金院本《調雙漸》이라는 명칭이 보이고, 金人 董解元의 《西廂記諸宮調》卷一【柘枝令】에 “也不是離魂倩女,也不是謁漿崔護,也不是雙漸豫章城,也不是柳毅傳書”라고 한 것으로 보아 송, 금대에 본 연애고사가 상당히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水滸傳》五十一回“插翅虎枷打白秀英,美髯公誤失小衙內”에서 白秀英이 豫章城 雙漸趕蘇卿의 故事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明人 梅禹金の 《靑泥蓮花記》卷七 “記從一”중의 “蘇小卿”條에

소소경은 노주의 기녀이다. 서생 쌍점과 사귀어 정이 매우 깊었다. 쌍점이 출타한지 오래되지 않아, 소경은 절개를 지키며 그를 기다리며, 다른 이와 사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몰래 江右의 茶商 馮魁와 계획을 세우고,馮魁에게 팔았다. 小卿은 차배의 달밤에 깊은 한을 비파에 실어 평겼다. 금산사를 지나다가 벽에 시를 적어,쌍점이 보게 하였다. “그 해 신표 나누어 가졌음을 생각하노니, 지금은 서로 소식이 망망 하구나. 관두경 열고도 (부인을)가로 눕히지 못할 것이고, 땅에 묻히면서도 아름다운 옛님을 찾으리. 팽택의 새벽 안개 잠 못이루게 하고, 소상



의 밤 비는 애 끓게 하도다. 새 시 지어 금산사에 기록하고서, 돛 높이 올리고 예장성으로 향하네.

(蘇小卿, 廬州娼也. 與書生雙漸交昵, 情好甚篤. 漸出外久之不過. 小卿守志待之, 不與他狎. 其母私與江右茶商馮魁定計, 賣與之. 小卿在茶船, 月夜彈琵琶甚怨. 過金山寺<sup>13)</sup>, 題詩于壁, 以示漸云: “憶昔當年折鳳凰, 至今消息兩茫茫. 蓋棺不作橫金婦, 入地當尋折桂郎. 彭澤曉烟迷宿夢, 瀟湘夜雨斷愁腸. 新詩寫記金山寺, 高掛雲帆上豫章.” 浙后成名. 經官論之, 復還爲夫婦.)

元代作家들중에서 이 題材로 극을 지은이가 적지 않다. 《錄鬼簿》에는 王實甫의 《蘇小卿月夜販茶船》, 紀君祥의 《信安王斷販茶船》, 庾吉甫의 《蘇小春麗春園》등의 잡극이 있고, 《錄鬼簿續編》에는 無名氏의 《豫章城人月兩團圓》잡극이 있다. 이 밖에 《永樂大典》 卷一三九七에는 《蘇小卿月夜販茶船》희문이 실려있다. 위 상황으로 보아 마치원은 雙漸小卿故事의 大綱에 백거이의 《琵琶行》을 섞어 나름대로 운색해서 《靑衫淚》를 완성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가? 마치원은 【商調·集賢賓】金山寺과 【仙呂·賞花時】長江風送客등의 산곡에서도 雙漸蘇卿고사를 제재로 삼고 있어서, 그가 본 제재에 커다란 흥미를 보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열심이었을 가능성조차 있다. 이밖에 대시인 백거이는 평소 풍류를 좋아해서 餘暇에 聲妓를 일삼았다고 한다. 백거이는 杭州시절에 謝好, 陣寵, 商玲瓏등과 즐겼으며, 蘇州시절에는 李娟, 張態등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또한 기생과 더불어 오일동안 太湖를 유람하며 즐겼으며 더불어 <嘗賦紀游詩>는 기생과 즐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14)</sup>.

元人 夏伯和의 《靑樓集》<sup>15)</sup>에는 一百餘名の 당대 명기들에 대해서

13) 現 江蘇省 鎮江市 西北 金山에 위치한 江天寺.

14) 王書奴, 《中國娼妓史》.

15) 《中國古典戲曲論集成》 卷二, 北京, 中國戲曲出版社, 1996. 25쪽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 중에서 ‘樊事眞’이라는 기생에 대한 대단히 특이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번사진은 경사의 명기인데, 참의 주중굉이 그를 사랑하였다. 주중굉이 강남으로 돌아가게 되자, 번사진은 제화문 밖에서 이별주를 마시게 되었다. 주중굉이 말하기를 “이별 후에 스스로 몸을 보증하시어, …” 번사진이 땅에 술을 뿌리며 맹세하기를 “첩이 만약 그대에게 누를 끼치게 된다면 눈 하나를 찢러 군자에게 사죄 하겠습니다.” 얼마되지 않아, 한 권력자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꺾박하고 한편으로 재물을 주니, 번사진은 처음에는 의연하였으나 끝내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후에 주중굉이 경사에 오니 번사진이 말하기를 “이별 후에 몸을 보증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졸지에 꺾박을 받았으니, 옛 맹세를 어찌 잊으리리오”하고는 곧 籠<sup>16)</sup>를 뽑아 왼쪽 눈을 찢으니 땅에 피가 질펀히 흘렀다. 주중굉은 이를 보고 놀랐으나, 이로 인하여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호사자들은 (이를 보고) 잠극을 지으니 《樊事眞金籠刺目》이 그것이며, 세상에서 공연되고 있다.

(樊事眞京師名妓也. 周仲宏參議嬖之. 周歸江南樊飲錢于齊化門外. 周曰別后善自保持, … 樊以酒酌地而誓曰, 妾若負君當剗一目以謝君子. 亡何有權豪者來, 其母既迫于勢, 又利其財, 樊則始毅然, 終不獲已. 后周來京師, 樊相語曰別后非不欲保持, 卒爲豪勢所逼, 昔日之誓, 豈徒沒哉. 乃抽金籠刺左目, 血流遍地, 周爲之駭然, 因歡好如初. 好事者編爲雜劇曰樊事眞金籠刺目, 行于世.)

이 기록에서 《靑衫淚》의 줄거리와 흡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樊事眞의 故事와 雙漸小卿의 傳說, 그리고 <琵琶行>을 적절히 배치하면 《靑衫淚》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백거이의 고사는 겨우 극의 발단부분과 고정되어 있는 백거이의 이미지가 이용되었을 뿐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마차원은 《靑衫淚》에서 단순히 백거이의 고사를 부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백거이의 고사를 이용하여 그가 처했던

16) 籠:머리에 가리마를 탈 때 사용되는 대(竹)로 만든 기구 또는 빗.

현실, 특히 기녀들의 기구한 삶이나 그들의 운명을 반영하고 그 나름대로의 해소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 같다. 더구나 淸會활동을 했던 마치윈에게 있어서 기녀들은 그와 아주 가까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했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靑衫淚》의 제재는 白居易의 詩 《琵琶行》의 내용에서 意境를 따오고, 여기에 당시의 뛰어난 연주가인 襄興奴의 이미지를 宋代 雙漸小卿故事의 情節에 삽입, 여기에 妓女 樊事眞의 故事를 적절히 운색 가미하여 이룬 것이다.

## 2) 史實에서 文學으로(作虛)

마치윈은 《靑衫淚》를 창작하기 전에 창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散曲 【四塊玉·溇陽江】에서도 백거이에 대해서 읊고 있다.

객을 전송하는데, 가을 강 차구나. 상녀의 비피소리 애간장 끊나니, 사마는 근심스럽게 듣고 있겠지. 달은 밝고, 술은 덜 깨었는데, 객은 마침 깨어나는구나.

(送客時, 秋江冷, 商女琵琶斷腸聲, 可知道司馬和愁聽. 月又明, 酒又醒, 客乍醒)

여기에서는 戀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백거이의 《琵琶行》의 意境과 비슷하다. 그런데 왜 《靑衫淚》에서는 전체의 意境을 완전히 바꾸어 離合悲歡의 戀愛故事로 바꾼 것일까? 아마 의탁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마치윈은 《靑衫淚》를 창작하면서 前代의 文人과 妓女의 연애고사와 전설등을 원용하고 있지만, 연애고사 자체에 공력을 드리기보다는 이 연애고사를 통해서 그가 드러내고 싶어하던 현실생활을 반영하려는 흔적이 역역하다. 주요하게 드러나는 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우선, 원대 기녀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靑衫淚》의 현실성을 알 수

있다. “雙漸小卿”의 諸宮調는 원대의 勾欄에서 대단히 성행하고 있었다. 《靑樓集》에서 당시의 상황을 엿 볼 수 있다.

조진진과 양옥아는 제궁조를 잘 불렀다. 양립제는 장오우와 상정숙이  
편한 쌍점소경을 부르는 것을 보았다.

(趙眞眞楊玉娥善唱諸宮調。楊立齋見其謳張五牛商正叔所編雙漸小卿。)

기녀들 사이에서 쌍점소경의 고사가 애창되고 있었던 이유는 小卿의 운명과 그들의 운명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 감정상의 공명이 쉬웠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마치원은 원대의 하층문인의 문제를 백거이를 통해 드러내 고자 했다. 원초기의 문인들은 出仕의 길이 막히고 經濟能力의 부재로 자연스럽게 사회의 하층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원대의 극작가들은 뛰어난 문인들이지만 그들의 직업은 점장이나 小吏, 說書, 극단의 작가등으로 전전해야만 했다.《錄鬼簿》에 의하면 關漢卿, 楊顯之 등은 “上京書會”의 작가로, 鄭德輝, 周文質, 曹明善 등은 “路吏”로, 范居中, 趙廣 등은 占術로<sup>17)</sup>, 더구나 施惠는 吳山城의 城隍廟 앞에서 좌판장사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다<sup>18)</sup>. 이러한 생활은 혼인문제에서도 원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 역시 아름답고 마음에 맞는 여인을 구하였겠지만 그들의 처지로 보아 여의치 못했을 것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시의 하층민에 해당하는 靑樓의 知音之友를 찾게 되었을 것이고, 왕왕 청루에서 마음에 맞는 여인을 사귀게 되더라도, 이 여인이 관리들이나 부호에게 팔려가게 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흔적은 그들의 산곡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마치원은 書會의 文人이나 藝人 妓女들과 왕래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듣고 본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본인 역시 뜻을 얻지 못한 문인으로서 처량한 문인들과 불행한 기녀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17) “善假卜術之業”

18) “以坐賈爲業”

가졌고, 그래서 그는 대단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켜 Happyending으로 끝맺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대단원이 당시의 藝人, 妓女들에게 주었을 기쁨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마치원이 창조해낸 백거이는 당대의 대시인인 백거이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원초기의 하층문인이다.

세 번째로, 약탈결혼과 사기결혼은 원대에 비교적 성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결혼은 원시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었지만, 몽고인이 중원에 들어 온 후에 이러한 약탈결혼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초기에 정치적인 힘이 말단까지 미치지 못하는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고 蒙固人, 色日人, 漢人, 南人을 막론하고 힘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하고자하는 바는 무엇이나 거리낌없이 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원은 한족 지식인으로서 이러한 사회의 혼란을 보고서 직접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품 속에 스며들게 된 것이다.

### 3) 《靑衫淚》

《靑衫淚》는 현재 남아 있는 마치원의 잡극 중에서 유일한 11本이다. 이 극의 前半部 二折은 즐거리가 뛰어나며 비교적 寫實的이어서 誇張이 적다. 全劇의 曲文은 백화체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자연스럽다.

第一折의 【仙呂·點絳脣】에서는 잠시 기녀의 정상적인 형상을 보여주지만 이어서 【混江龍】 【油葫蘆】 【天下樂】 등의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세습되는 기녀의 신분, 기생어미에 대한 불만과 이를 빠져 나가려는 의지로 점철되어 있다. 【混江龍】에서 그녀는

내 어쩔 수 없이,이 놈의 앞날에 좋은 조치를 취해야만 되겠다.

(好教我出於無奈,潑前程只辦的好栽排.)

고 하여,전극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自古以來로 기녀와 문인들의 관

계는 현격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더구나 원대의 극작가들과의 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다. 【醉扶歸】 【後庭花】 이후 4곡은 주로 이러한 정황의 묘사를 하고 있다. 즉 【後庭花】의 내용이 第一折의 후반부를 대표하고 있다.

이 곳은 紅燈街이지 王侯宰相의 저택이 아닙니다. 제가 바빠 옷은 얼굴로 맞이하러 갈 터인데, 학사님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 왔습니까?

(這裏是風塵花柳街,又不是王侯宰相宅.我忙着笑臉兒仰將去,學士是甚風兒吹到來.)

第一折의 마지막에서는 배흥노가 백거이에게 혼자만 다시 올 것을 넌즈시 권하고 있다. 이는 【混江龍】의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靑衫淚》의 주요인물인 배흥노와 백거이의 관계에 있어, 第一折에서 보여주는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楔子에서는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는데 【仙呂·端正好】와 그 이후의 白의 意境은 전술한 樊事眞故事의 전반부와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다.

裴興奴 : 그대를 보내야한다는 마음은 있으나, 그대를 머물게 할 수는 없네. 그대와 이별 후 꿈에서나 볼 뿐 소식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한 동이 술 다하니 청산은 저물고, 나는 구슬같은 눈물을 소매로 닦네. 당신이 석양을 등지고 長途에 오른다하니, 정은 처참히 끊어지고, 마음은 망설여 지네. 당신의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떠나지 마옵소서! 相公! 이별한 후에 참은 다른 사람은 받아 들이지 않고 오로지 相公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나이다.

白樂天 : 아가씨, 마음을 굳게하소서. 소관은 결코 저버리지 않고 돌아 오겠습니다.

(【仙呂·端正好】有意送君行,無計留君住,怕的是君別後有夢無書.一尊酒盡靑山暮,我搵翠袖淚如珠.你帶落日踐長途,情慘切意躊躇,你則身去心休去.(云)

相公,此別之後,妾身再不留人,專登相公早些回來。  
(白樂天云)大姐,則要着志者,下官決不相負,我去也.)

한편으로 설자에 등장하는 백거이의 형상은 관리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형상이다.

小官은 白樂天입니다. 평생 술과 시로 일 삼아서 醉吟先生이라고 불리웁니다.

(小官白樂天,平生以詩酒爲樂,因號聚吟先生)

마치원은 백거이에게 동정적이지만 그를 추앙하고 따를 인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상기의 ‘白’은 야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楔子에서는 벌써 두 사람이 이별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과정이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정절은 찾아 볼 수 없다.

第二折 【正宮·端正好】부터 이하 【滾綉球】까지 7曲의 주요 내용은 백거이에 대한 그리움과 결혼을 요구하는 유원외에 대한 원망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9)</sup>. 이후 백거이가 죽은 줄로 잘못 알게된 배홍노는 【叨叨令】부터 마지막까지 백거이에 대한 그리움과 타향살이에 대한 근심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다<sup>20)</sup>. 이해보아 第二折의 주요내용은 배홍노가 안고 있는 사랑의

19) 나는 최근 이틀간 서루에 올라가, 헛되이 남겨진 故人的 편지를 삼십번이나 읽었으나, 떠난 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네. 기러기 오는 소리를 들리니, 나는 즉각 정원에서 피리를 불었고, 말 울음 소리를 들으니, 눈빛은 늘어진 수양버들가지 꿈울 듯하네. 상공! 당신은 정말 돌아가셨습니까? 당신은 정말 돌아가셨습니까? 이후로는 생각할수록 더욱 생각하던 원귀가 나타나겠구나.

(我這兩日上西樓,盼望三十遍,空存得故人書,不見離人面.聽的行雁來也,我立盡吹簫院,聞得聲馬嘶也,目斷垂楊線.相公呵,你原來死了也麼哥.你原來死了也麼哥.從今後越思量越想的冤魂兒現.) 【叨叨令】

20) 나그네의 꿈을 깨우는 황혼의 개 짖는 소리와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는 석양의 매미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겠구나.萬頃蒼波에 입하니,내려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근심스러움이다, 마치원이 第二折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결코 배홍노와 백거이의 사랑이 그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第三折에서는 무대가 갑자기 백거이가 머물고 있는 강주로 옮겨진다<sup>21)</sup>. 冒頭의 【雙調·新水令】 이하 【駐馬聽】 【步步嬌】 【攪箏琶】에서는 근심스러움, 백거이에 대한 아득한 그리움, 신세타령등을 늘어 놓고 있다<sup>22)</sup>. 이어서 【雁兒落】 이하 3曲은 두 사람의 뜻밖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데, 백거이를 귀신으로 오해한 배홍노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자 백거이는 그 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된 사연을 구구히 변명하며 오히려 배홍노를 원망한다.

나는 이별한 후에, 이 곳 강주에 와서 아가씨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소. 다만 심복이 없어, 편지를 보내기 어려웠을 뿐인데, 당신은 내가 집에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찻배를 따라 와서, 오히려 내가 나쁘다고 하는구려.

(我自相別來此江州，無時不思念大姐。只是無心腹人，不好寄書，你却等不的我回家，就跟着這商船來了，到說我的不是。)

이어서 【卦搭沽】 이하 8곡은 새삼스럽게 일어나는 유일랑에 대한 분노를 노래하고, 또 떠나는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sup>23)</sup>. 유일랑이

앉은 짝지는 백로 몇 쌍,千里 靑山을 대하면,양쪽 河岸의 원숭이 소리 들겠지. 근심스러운 것은 깊은 가을의 기러기 때와 여름의 우뢰같은 모기 소리,二月에 갈대 안개로다. 그의 책 읽던 靑燈과 노란 책은 볼 수 없고, 고깃배의 등불과 함께 근심스런 잠을 대하겠지.

(少不的聽那驚回客夢黃昏犬，聒碎人心落日蟬。止不過臨萬頃蒼波，落幾雙白鷺，對千里靑山，聞兩岸啼猿。愁的是三秋雁字，一夏蚊雷，二月蘆烟。不見他靑燈黃卷，却索共漁火對愁眠。) 【二煞】

21) 사람들에게 물으니,여기가 바로 강주라고 합니다.

(問人說來，這裏正是江州)

22) 【雙調·新水令】 【駐馬聽】은 “會景而生心”. 【步步嬌】 【攪箏琶】에서는 “體物而得神”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단이불,비파등을 이용하고 있다.



깨어나 地方에게 달려가 배홍노가 도주하였거나 유괴되었을 것이라고 발하지만, 지방은 오히려 유일랑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하며 그를 체포한다.

第四折은 맨 마지막의 【隨煞】은 본 극의 주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중요하다.

방금 만리 하늘 끝에서 돌아오니, 귀밑머리 성기더니 백발이 생기네.  
나는 그 어릴 적 마음을 버리고, 다시는 봄바람 속에 鳳城花를 꺾으려  
가지 않으리!

(恰纔來萬里天涯,早愁鬢蕭蕭生白髮.俺把那少年心撇罷,再不去趁春風攀  
折鳳城花)

배홍노는 황제로부터 재결함을 허락 받고 다시 이루게 된 두 사람의 사랑의 환희를 노래하기 보다 路柳墻花의 생활과 인연을 꿰뚫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마치원이 본 극에서 제시한 주요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배홍노의 從良에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상술한 以實作虛의 과정을 보더라도 이러한 마치원의 주제사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第一折에서는 두사람의 만남만을 다루고 있고, 楔子에서는 만남지 반년이 되었다는 짧은 白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第二折은 배홍노가 안고 있는 원망과 근심스러움 그리고 그리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第三折의 冒頭에서도 배홍노의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스러움, 백거이에 대한 아득한 그리움, 신세타령 등을 늘어놓고 있다. 이어서 【雁兒落】 이하 3曲은 두사람의 뜻밖의 만남을 다루고 있고, 이어서 【卦搭

23) 나는 오직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서,머리장식을 정리하고,짐을 옮긴다.  
마음의 배회가 없으니 번뇌도 없도다.

(我只待使摘離,把頭面收拾,倒過行李.休心意徘徊,正愁煩無了期。) 【梅花酒】

沽】 이하 8곡은 새삼스럽게 일어나는 유일랑에 대한 분노를 노래하고, 또 떠나는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隨煞】에서는 다시는 기녀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끝을 맺는다. 본 극의 어디에도 두 사람의 사랑을 진지하게 묘사한 부분은 없다. 백거이에 대한 그리움은 모두 일방적인 배홍노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어 이를 두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본 극은 第四折에 이르러 모든 면에서 크게 변하는데, 折의 거의 전체가 배홍노가 황제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지루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은 臧晉叔이 그의 《元曲選》序<sup>24)</sup>에서 清代 李調元은 그의 《雨村曲話》卷上을 인용하여

비록 한 때의 명사 마치윈 교몽부 등이라고 할지라도, 第四折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힘이 빠져 버린다.

(一時名士雖馬致遠, 喬夢符輩, 至第四折往往強弩之末.)

이라고 평가한 이유일 것이다. 마치윈은 배홍노와 백거이의 개인적인 재결합을 조정으로 가지고 가서 황제의 운허을 얻는다는 우스꽝스러움을 범하였고, 또한 結尾에서 배홍노가 황제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아뢰게 한 것도, 結構의 중복과 이것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느슨한 감은 극적효과를 크게 감하고 있다. 따라서 第四折은 잡극 《靑衫淚》의 작품성을 위하여 없었으면 좋았을 부분이다.

#### 4. 結 論

《漢宮秋》는 왕소군의 일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末本이다. 이러한 구조는 다분히 의도적인 면이 엿보인다. 그는 한원제의 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만약 한원제의 무능, 무기력한 신하들에 대한 총체적인 분

24) 明 臧晉叔, 《元曲選》, 北京, 新華出版社, 1996

노 등이 왕소군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극의 현실감에 커다란 문제를 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원이 본 극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주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正史나 野史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본 고사에서 모연수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극에서 모연수는 새로운 사건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뿐 차지하는 지면이 대단히 미미하다. 이러한 현상도 모연수의 곱지 않은 형상을 드러내는 일보다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한원제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함일 것이다.

이로 보아 마치원이 《漢宮秋》에서 보여준 제재의 운용은 당시 사회에 흘러다니던 소재를 취하여, 작품에 자신의 주제를 담기 위해 古代의 正史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여기에 왕소군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관념과 자시의 회포를 담은 전형적인 사실을 허구화한 즉, “以實作虛”의 작품을 엮어 낸 것이다.

《靑衫淚》는 樊事眞의 故事와 雙漸小卿의 傳說, 그리고 <琵琶行>을 적절히 배치 운색하여 이룬 것인데, <琵琶行>의 백거이의 고사는 고정되어 있는 백거이의 이미지만을 이용되었을 뿐, 그의 고사를 부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당시 기존하던 쌍점소경고사는 작가들이 가깝게 여기던 기생 번사진의 일로 인해 더욱 많은 작가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문인의 기질이 농후한 마치원은 이를 단순히 쌍점과 소경의 연애사건과 연관시켜서 단순히 부연하기 보다는 익히 알고 있는 백거이의 <琵琶行>을 원용하여 새로운 의경을 부여했던 것이다. 백거이의 <비파행>을 원용한 것은 마치원의 숨길 수 없는 文人的 취향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靑衫淚》의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제재의 운색과 배치에서 馬致遠의 주제사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第一折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만을 다루고 있고, 楔子에서는 만난 지 반년이 되었다는 짧은 白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第二折은 배홍노가 안고 있는 원망과 근심스러움 그리고 그리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第二折의 冒頭에서도 배홍노의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스러움, 백거이에 대한 아득한 그리움, 신세타령 등을 늘어 놓고 있다. 이어서 【睚兒落】 이하 3곡은 두 사람의 뜻밖의 만남을 다루고 있고, 이어서 【卦搭沽】 이하 8곡은 세삼스럽게 일어나는 유일랑에 대한 분노를 노래하고, 또 떠나는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隨煞】에서는 다시는 기녀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끝을 맺는다. 본 극의 어디에도 두 사람의 사랑을 진지하게 묘사한 부분은 없다. 백거이에 대한 그리움은 모두 일방적인 배홍노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어 이를 두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극의 주제는 取材面으로 보나 情節의 내용으로 보나, 백거이와 배홍노의 사랑이라기 보다는 “기녀 배홍노의 운명에 대한 동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以實作虛의 과정에서 여러 개의 ‘實’을 적절히 윤색 분산배치하여 새롭게 ‘作虛’한 마치원의 文才는 대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제재는 주제를 담기 위한 재료에 해당하지만 제재가 원래의 모습대로 작품에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문학작품이란 거의 예외없이 사실전달의 책임이 없다. 작가는 제재를 적절히 가공, 윤색, 剪裁하여 그가 원하는 다른 인물이나 상황을 만들어 내서 거기에 그가 드러내고 싶은 주제를 담는 것이다. 따라서 제재가 주제와 연결되는 사이에 존재하는 과정은 작가의 창작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 과정 즉, 以實作虛 과정의 규명은 한 작품의 주제를 명확히 알아보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

<參考文獻>

- 王志武,《古代戲曲賞介辭典-元曲卷》,陝西人民出版社,서안,1988.5.  
徐培均 등,《中國古典名劇鑑賞辭典》,上海古籍出版社,상해,1990.  
蔣星煜,《元曲鑑賞辭典》,上海辭典出版社,상해,1990.12.  
王沛綸,《元曲辭典》,臺灣中華書局,1975  
陸潛安,《戲曲詞語匯釋》,上海古籍出版社,1981.  
臧笈叔,《元曲選》,中華書局出版社,北京,1989.3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中國戲劇出版社,1980  
瞿鈞編注,《東籬樂府全集》,天津古籍出版社,천진,1990.  
陶宗儀,《輟耕錄》,세계서국,1978.  
梁會錫,《中國戲曲》,민음사,1994.  
劉蔭柏,《馬致遠及其劇作論考》,文化藝術出版社,북경,1990.8  
羅錦堂,《元雜劇本事考》,順先出版公司,대북,1976.  
餘大平,〈馬致遠雜劇的時代特色〉,《武漢師院學報》,무한,1982. 제2기.  
彭發興,〈元雜劇《漢宮秋》主題思想質疑〉,《昆明師院學報》 1982. 제4기  
王季思,蕭德明,〈從《昭君怨》到《漢宮秋》〉,《社會科學戰線》,1979년, 제1기.